

## 국제관개배수위원회의 정기별 위원회의 소식

### ▣ 인도네시아 관개배수위원회(INAICD)

제6회 국제 임원회의와 아시아지역회의는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Yogyakarta)주에서 2010년 10월 10일부터 16일 까지 인도네시아 관개배수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두가지 행사에 관한 사항은 secretariat@icid2010.org로 연락하기 바란다.

### ▣ Switzerland (CH-AGRAM) World Climate Conference-3

세계 기후 회의-3(WCC-3)는 세계기상기구의 후원 하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UN센터에서 2009년 8월 31일에서 9월 4일까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CH-AGRAM(농업시스템과 토지개발을 위한 스위스 국립 위원회)는 국제 관개배수위원회를 대표했다.

2000명 이상의 분과별 전문가, 의사결정자, 기후학자가 참석한 WCC-3는 “생산증대, 이용가능성, 과학에 기초한 기후예보와 서비스의 향상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공헌도를 위해 Global Framework를 설립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WCC-3는 코펜하겐 기후협약과 과학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라고 말했다.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 장관 모리츠 로이엔베르거(H.E. Mr. Moritz Leuenberger)는 “Framework는 실제적 기후 변화에서 보다 나은 대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Framework는 “다양한 사회경제분야에서 가능한 많은 사용자와 세계 여러 사용자 그리고 기후 전문가와 과학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다”고 로이엔베르거는 역설했다.

과학자와 분과별 전문가는 Global Framework의 발전시킬 수 있는 다섯 개의 주요 요소를 강조하였다.

- 세계 기후 관찰 시스템과 모든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에서, 기후 데이터의 원활한 사용과 교류
- 세계 기후 연구 프로그램에서, 컴퓨팅 분석 자료의 기반 구축과 세계 기후 연구에 따른 원활한 교류.
- 현존하는 국내와 국제 협정을 이용한 기후 서비스 정보 시스템 구축.
- 기후 자료의 제공자와 사용자간의 통합정보와 결합에 초점을 둔 기후 사용자 편의 체계 구축
- 교육, 실습, 교류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능력배양.

기후 변화에서 국가간 의장인 Mr Rajendra Pachauri는 2°C와 연관된 과학적 실제성을 강조했다. 온도의 증가로 인해, 해수면 상승은 피할 수 없고 해안지역과 큰 삼각주에서 수백만 사람이 위협에 처할 것이다. 목표 2°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5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격한 감소가 필요하다. 그는 건강, 농업, 고용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온실가스 완화에 따른 큰 연계 이익을 역설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음에도 날씨의 변화와 영향이 관성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온실효과를 나타내고, 특히 세계의 취약한 대부분 지역에 적합한 기후 변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 상세한 것을 위해서는 WCC-3 Website를 참조하면 된다.

▣ 2011년 제21회 국제관개배수위원회 회의

국제관개배수위원회 본부는 2011년 테헤란 회의의 특별 세션과 두 개의 기본적 질문을 위해 국가별 위원회로부터 패널 전문가와 일반 보고서들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패널 전문가와 일반

보고서는 2009년 12월에 인도 뉴델리 회의 이번 미팅에서 결정되었다. 두 개의 기본적 질문과 패널 전문가와 일반 보고서의 특별 세션을 위한 지정된 주제는 이미 배포되었고 또한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별 위원회는 뉴델리에서 제60회 IEC에 반영하기 위해 국제관개배수위원회 본부(e-mail : [icid@icid.org](mailto:icid@icid.org))에 추천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회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www.icid2011.org](http://www.icid2011.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맹승진 교수  
([maeng@cbnu.ac.kr](mailto:maeng@cbnu.ac.kr))